



## 돼지 생산액 3조7천억원, 축산업 부동 1위

### 미곡 생산액 줄고, 축산 생산액 늘어

2005년 농림업 생산액이 줄어든 가운데 돼지 등 축산부문 생산액은 늘어났으며, 특히 돼지 생산액은 3조7천억원을 훨씬 넘어 축산업 생산액 중 1위를 지속 유지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각 품목별 생산량에 연평균 농가판매가격을 곱해 산출한 농림업 생산액이 36조2,729억원으로 2004년 37조2,886억원보다 1조157억원(2.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05년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32.4%를 차지하는 축산부문의 생산액은 11조7,6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6%가 증가했으며, 돼지 생산액은 3조7,586억원으로 지난해 3조6,668억원보다 2.5% 증가했다.

돼지 생산액은 농림업 생산액 중 미곡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축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생산액은 70년대

에 9위에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면 '80년 들어 3위, '90년 이후 '95년 4위를 제외하고는 줄곧 2위 자리를 고수해 우리나라 농업에서 단일 품목별 생산액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업 중에서도 지난 '75년 이후 '95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한편 농림부는 축산부문 생산액이 증가한데 대해 '생산두수 및 축산물 생산량이 약간 증가한데다 가격호전 추세가 지속되어 생산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생산액 순위로는 미곡, 돼지, 한·육우, 우유, 닭이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됐으며, 이들 5대 품목이 농림업 생산액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